

‘봄나들이 3종 세트’ 두근두근 강진여행



신전면 사초 개불잡이 모습



마량농토수산물시장 회설기 이벤트



전라병영성 전경

겨우내 쌓인 짐들을 버리고 산바람, 강바람, 바닷바람을 맞으러 떠나기에 제격인 봄이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 찬 강진이 부른다. 강진사초 개불&낙지축제가 코앞이고 전라병영성축제가 기다린다. 남해안 최고의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의 보고(寶庫) 강진 마량농토수산물시장도 곧 개장이다. 따뜻한 정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감성여행 1번지 강진의 봄을 맞으러 가자. 가족과 함께 떠나는 ‘강진 봄나들이 3종 세트’를 미리 경험해 본다.

사초개불&낙지축제 4월1~2일 바다내음 맡으며 갯벌에서 빨갯하기 즐거워
마량농토수산물시장 4월1일 개장 최고의 감성시장 볼거리·먹을거리 널렸네
전라병영성축제 4월21~23일 절도사 입장식에 의장대·군악대 공연 장관



강진군 신전면 사초해변공원 일원에서 지난해 열린 강진 사초개불&낙지축제에서 관광객들이 다양한 개불 음식을 맛보는 모습. <강진군 제공>

1. 개불과 낙지가 강진서 결혼한다는데 가보아야지~

제3회 강진사초개불&낙지축제가 4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강진군 신전면 사초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올해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 사초바다의 건강한 개불과 낙지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감으로 바다 내음을 느끼며 강진 수산물 직거래를 통해 지역민의 소득창출도 이끌고 있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개불·낙지잡이 체험은 행사기간 모두 3차례 열린다.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바닷물과 개불 속에 살아있는 개불과 낙지를 넣어 관광객이 들어가 직접 잡는 방식이다.

상설행사로 열리는 ‘갯벌에서 빨갯하기’는 빨밭으로 들어가 조개를 잡는 체험이다. 이틀간 물이 빠지는 시간을 활용해 열린다. 만 10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체험요금은 5000원이다.

강진 사초마을 외가 체험은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새끼줄 꼬기, 새끼줄로 줄넘기하기, 옷놀이, 비석치기, 날뽀기, 볏짚 미끄럼틀을 즐길 수 있다. 현장에서 접수받는다.

이와 함께 강진에서 생산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먹어보는 체험과 강진의 쌀로 만든 떡을 만들고 먹어보는 일정이 있다. 떡메치기는 평소 ‘신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아낙네의 필수 참여코스다.

이번 강진사초개불&낙지축제 부대행사로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친환경농수산물 판매장에서는 강진 친환경 쌀과 굴, 꼬막, 바지락, 강진 작한한우, 사초마을 ‘해로달인 김’을 판매한다.

이밖에 개불과 관광객의 만남, 품바공연, 색소폰동호회, 통기타가수 초청공연, 손재주초청공연, 평양진달래예술단, 중국 변경기예공연이 펼쳐진다. 사초마을 개불축제가오제 본선은 2일 오후 3시50분 특별무대에서 예심을 거친 10명이 실력을 뽐낸다.

2. 갯바람 쐬러 간 마량, 신선 횡감에 허도 깜짝

두근두근 감성여행~, 강진 마량농토수산물시장에 오는 1일 드디어 문을 열고 남해안 최고의 장을 펼친다.

수산물 입구에는 마량의 특징을 살린 조형물을 만들고 컨테이너 상가에는 바다와 어울리는 디자인과 페인팅, 포토존 설치로 관광객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강진군은 특히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농토수산물시장 뒤편에 주차장 70면을 새로 조성했으며, 쾌적하고 청결한 이동식 화장실 2개도 배치했다. 햇빛 가리개를 새로 설치해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오가는 이들의 휴식공간도 확보해 편의성을 높였다.

마량농토수산물시장에서 거래하는 수산물은 강진 정정해역에서 잡아 강진군수협이 당일 위판한 것으로 신뢰 확보는 물론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음악회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회뜨기소와 가족체험 낚시, 해양레포츠, 마술공연 등을 즐기고 오감향복회와 된장물화, 삼합리면, 소나비, 장아탕 등 5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여기에 전복과 낙지, 바지락, 꼬막, 김, 미역, 다시마 등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으면 금상첨화다. 덤으로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다.

강진군은 올 마량농토수산물시장 운영의 핵심가치로 감성과 추억, 여기에 실속을 더했다. 매주 토요일 35회, 강진정자축제기간 7회 등 모두 42회 운영하고 연인원 방문객 수는 26만 명을 기대하고 있다.

3. 호국기운 느끼는 전라병영성 600주년 기념축제

강진 전라병영성 축성 600주년을 기념하는 제20회 전라병영성축제가 4월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라병영성을 대 한민국의 호국정신 성지로’를 주제로 강진군 병영면 일원에서 열린다.

의식행사로는 4월21일 오후 1시 병영면 설성공원에서 전라병영성 1.3km에 이르는 거리에서 전라병영성 600주년을 기념하는 전라병마절도사 입성식을 재현한다. 특히 입성식 완료 후 전라병영기 계양식을 가짐으로써 조선군의 당시 기개를 알리고 개막식 참석자들은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의미하는 600개의 풍선을 날려 호국정신을 가다듬는 의미있는 시간도 갖는다.

기획행사로는 22일 오후 1시부터 전라병영성 성곽에서 일반인 300명이 연씨움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겨루고 창작연 시연과 소망·화합의 연날리기, 한국 전통연 전시, 연 만들기 체험을 한다. 이와 함께 학술심포지엄은 22일 오후 2시부터 병영면사무소에서 전라병영성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전라병영성 향후 복원 방향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체험·참여프로그램으로는 600주년 줄다리기가 볼거리다. 21일 오후 3시부터 읍면별 각 1개팀이 참여해 3전 다승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해 우승팀을 가린다.

마천록 장군기 전국궁도대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관덕정에서 전국 궁도인을 대상으로 열린다. 눈길을 끄는 공연행사로는 군 문화페스티벌이 21일 오후 6시 특별무대에서 3군 의장대 및 군악대, 취타대, 전통의장대 초청공연으로 펼쳐지고 대한민국 전통무과대전은 22일 오전 10시 학생부와 고수부로 나눠 진행된다.

강진원 강진군은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으로 오면 추억을 만들고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친절과 신뢰, 정결로 다져진 강진사람들의 정과 멋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광주, 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물,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